024

新수능 국어 최적화 기출 분석

2023학년도 7월 모의고사 32~34 풀이시간 :
풀이 전 이해도 : 수업 후 이해도 :

(가)

동짓달에도 날씨가 며칠 푸근하면
철없는 개나리는 **노란 얼굴** 내민다
봄이 오면 꽃샘추위 아랑곳없이
진달래는 곳곳에 소담스럽게 피어난다
피어나는 꽃의 마음을
가냘프다고 / 억누를 수 있느냐
어두운 땅속으로 뻗어나가는 뿌리의 힘을
보이지 않는다고 / 업신여길 수 있느냐
땅에 깊숙이 뿌리내리고
하늘로 피어오르는 꿈을
드높은 가지 끝에 품은
나무처럼 젊은이들도
힘차게 위로 솟아오르고
ⓐ 조용히 아래로 깊어지며
밝고 넓게 퍼져 나가기를
그러나 행여 잊지 말기를
ⓑ 아무리 높다란 나뭇가지 끝에서
저 들판 너머를 볼 수 있어도
뿌리는 언제나 땅속에 있고 / 지하수가 수액이 되어
남모르게 줄기 속을 흐르지 않으면
바람결에 멀리 향냄새 풍기는
아카시아도 라일락도 / 절대로 피어날 수 없음을

- 김광규, 「나무처럼 젊은이들도」 -

(나)

ⓒ 사당역 4호선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려고
에스컬레이터에 실려 올라가서
뒤돌아보다 마주친 저 수많은 얼굴들
모두 붉은 흙 가면 같다
얼마나 많은 불가마들이 저 얼굴들을 구워 냈을까

무표정한 저 얼굴 속 어디에
ⓓ 아침마다 두 눈을 번쩍 뜨게 하는 힘 숨어 있었을까
밖에서는 기척도 들리지 않을 이 깊은 **땅속**을
밀물져 가게 하는 힘 숨어 있었을까

하늘 한구석 별자리마다 쪼그리고 앉아
별들을 가마에서 구워 내는 분 계시겠지만
그분이 점지하는 운명의 별빛 지상에 내리겠지만
물이 쏟아진 듯 몰려가는
땅속은 너무나 깊어
그 별빛 여기까지 닿기나 할는지

수많은 저 사람들 몸속마다에는
밖에선 **볼 수 없는** 뜨거움이 일렁거리나 보다
저마다 진흙으로 돌아가려는 몸을 **일으켜 세우는**
불가마 하나씩 깃들어 있나 보다

ⓔ 저렇듯 십 년 이십 년 오십 년 얼굴을 구워 내고 있었으니
모든 얼굴은 뜨거운 속이 굽는 붉은 흙 가면인가 보다

- 김혜순, 「별을 굽다」 -

32. (가)와 (나)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①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역동성을 표현하고 있다.
② 계절적 배경을 묘사하여 대상이 처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.
③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대상의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.
④ 자연과 인간을 대비하여 대상이 지닌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.
⑤ 공간의 이동에 따라 대상이 변화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.

33. ⓐ~ⓔ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① ⓐ : 현실에 대처하는 자세를 드러내어 젊은이들이 힘겨운 현실로 인해 고뇌하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.
② ⓑ : 극단적 상황임을 강조하여 현실에 순응하는 삶을 선택해야만 하는 젊은이들의 좌절감을 드러내고 있다.
③ ⓒ : 변화를 추구하는 모습을 통해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한 현대인의 노력을 그려내고 있다.
④ ⓓ : 삶이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 주어 현대인을 일터로 향하게 만드는 원인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.
⑤ ⓔ :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얼굴에 빗대어 각자의 일생을 만들어 가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.

34. <보기>를 참고하여 (가)와 (나)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 [3점]

<보 기>

(가)는 추운 날씨에도 꽃을 피우며 이상적 세계를 향해 가는 나무의 생명력의 근원이 보이지 않는 땅속의 뿌리에 있음을 보여 주며, 젊은이들도 나무처럼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낸다. (나)는 일상에 지쳐 살아가는 삶을 극복해 낼 수 있는 현대인의 생명력의 근원이 인간 바깥의 초월적 세계가 아니라 인간의 내부에서 기원한다는 사유를 드러낸다.

① (가)의 '노란 얼굴'은 겨울임에도 꽃을 피워내는 나무의 모습을, (나)의 '무표정한 저 얼굴'은 화자가 지하철역에서 만난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.
② (가)의 '보이지 않는'은 나무가 꽃을 피우게 하는 생명력이 사라진 상황을, (나)의 '볼 수 없는'은 현대인이 현실을 이겨내게 하는 생명력이 사라진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.
③ (가)의 '하늘'은 나무가 희망을 품고 향해 가는 곳임을, (나)의 '땅속'은 현대인이 반복적인 일상을 살아가는 곳임을 보여 주고 있다.
④ (가)의 '밝고 넓게 퍼져 나가기'는 젊은이들이 나무처럼 꿈을 피워내기를 바라는 마음을, (나)의 '일으켜 세우는'은 현대인이 삶의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.
⑤ (가)의 '뿌리'는 나무가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게 하는 힘의 근원임을, (나)의 '불가마'는 현대인이 일상을 극복하는 힘의 근원임을 보여 주고 있다.